

지방선거와 보강

전문가 칼럼

이삼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는 커녕 보강이다. 보고서도 올렸고 강의실도 확보했다. 그래도 짹짹하다. 보강에 가지못해 합의하던 학생의 얼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까지 다들 마뜩찮아 했다. 이해한다. 미리 투표해놓고 밀린 토의 진도 좀 뽐으려 했는데, 시쳇말로 스케줄이 꼬인 거다. 미안하다. 장마 전 화려한 어느 날이어야 할 유월의 13번째 날 보강 폭탄을 터뜨려서 미안하고 또 토의 진도 걱정하게 해서도 그렇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미안하다. 넌 군대 갈 필요 없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능해서 네 차례까지 오게 했다.

반세기 넘게 내전 하나 종식시키지 못한 거야 상대가 있는 문제라 그렇다. 자신의 아들딸들을 토익에, 스펙에,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온갖 걱정엔 휘둘리게 해놓은 건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반값등록금 운운하더니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그래서 어떤 시간강사들이나 쫓아내고 비정규직만 늘었다. 근데 꿩 구워 먹었는지 아무 말도 없다. 일자리 없다고 하소연했다니 역시 같은 말을 되뇌면서 인문계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공계 늘이면 일자리는 그냥 늘어난다. 무능에 무책임까지 더해졌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공통어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과 가상과 경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기술융합의 시대라는 어구까지 이어놓는다. 그 다음은 장밋빛 미래다. 일자리가 마구 생겨나고 생산력이 엄청 높아져 조금만 일하고 먹고 놀게 된단다. 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 벨트를, 대학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산학협력을. 비슷



기성세대의 무능은 지방선거 후보의 부실한 청년공약으로 나타난다.

(사진=중앙일보DB)

한 곡조다. 3차건 4차건 산업 아닌가. 이윤과 효율을 원칙으로 작동하는 한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나 말이다.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문제가 있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눅들게 된 것은 아니다. 시업장은 교수가 투표일에 보강을 잡는데도 이들이 패기 있게 거부 못하는 건 ‘왜 생산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 창업을 하는가, 왜 취업을 하는가, 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며 재투자를 하는가. 다시 말해, 왜 사는가. 먹고 살자고 그러는 것 아닌가. 혼자만 말고 같이 먹고 살자고. 사양업종을 정리해서 산업을 날씬하게 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에 날렵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인다. 거기다 디지털 생산기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 증대라는 이런 정책의 기초는 압축 근대화라 그 뒤를 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계속되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 결과가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이지 않은가.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다. 경제 문외한의 무식한 판단이지만 마차를 말 앞에 매는 것 같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을까. 말

하자면, 기업을 위해 대학이 인력을 만들어내는 대신 대학이 만들어내는 인력을 위해 기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광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기조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반갑다. 정권의 수반이 동문이어서만은 아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말이 경제현장에서 정확히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근의 아우성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까지 관철되기 바란다.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를 호령해온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이 만들어낸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이니가.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2010년경부터 보수적이기도 소문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주창해온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허송세월을 하느라 도입이 조금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운용한다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도로 보인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산업의 관성도 완강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적은 내부에 있다. 벌써부터 청와대 안쪽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 균열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기조 전체를 관통하게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은 덜하면서, 토의 점수에 목매달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잘릴까 걱정 덜 하면서, 제발이지 책 좀 읽어보고 수업에 들어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67년을 끌어온 내전을 종식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다. ‘아제’들이 한 건 하면서 무능의 상징을 하나는 벗어던지는 셈이다. 남은 건 소수의 기업과 족벌의 갑질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업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부와 명예를 뿔뿔하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머릿털 동문이며, 분발하시라. 수요일 하면 빨간 장미만 떠오르는 아제 상상력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임기 후 대응문을 들어서는 그를 토의 대신 인가담에 연연하는 후배들이 반가이 마중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참여마당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기존 시간강사

월드컵과 후마니타스칼리지

감동적인 사건에는 이야기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가로지르는 열망이 빛나는 이야기다. 내게 있어 2002년 월드컵은 그런 사건이었다.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유학 시절 나는 텔레비전으로 한국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핫발질만 해대던 팀이 세계적 수준의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오리를 백조로 만든 이 놀라운 변신이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이 함께 이룩한 업적이었음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게 두 번째 감동적인 사건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출범이었다. 히딩크처럼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많은 교수자의 협력이 낳은 결과였다. 내가 이 감동적인 사건에 ‘후마니타스 교수’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었다. 중핵교과에 시간강사의 직위로 소속된 나는 객원교수들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에 내용을 채우고 그 내용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2년 동안 우리는 거의 매주 토요일 워크숍을 열었다. 오고가는 비판과 격려를 통해 우리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방법을 고민했다. 교육이념에 대한 공감에서 우리나라 사명식으로 중핵교과는 더 단단한 교육공동체가 되었고, 이런 유대감으로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는 하나가 되어 ‘후마니타스칼리지 호’의 순항을 기원했다.

우리도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수다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는 근무조건과 처우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순항이란 대명제 앞에서는 급료나 시간배정에 있어서의 별 의미 없는 차이에 불과했고, 또 이 대명제의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이 차이가 지워질 것이라 약속과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인 객원교수와 소수인 시간강사를 통칭하던 ‘후마니타스 교수’라는 명칭은 점점 퇴색되었고, 마침내 중핵교수자들은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간강사를 차별했고, 행정책임자에게는 인적자원의 통제를 통한 인건비 절약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차별은 더욱 뚜렷해졌고, 마침내 시간강사는 시간강사이기에 열등한 교육자로 낙인찍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중핵교과 객원교수는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신분전환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핵교과 시간강사들은 1년 후면 전원 해고될지 모른다. 지난해 12월 총장님의 지시까지 받아들인 중핵교과 시간강사의 신분안정화 방안이 좌초하면서 그 과정이 시간강사의 전원 퇴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이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4강에 올랐기 때문은 아니다. 박지성, 안정환 같은 스타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전체 팀원이, 그리고 히딩크라는 결출한 감독을 비롯해 무명의 코치진까지 그 공을 골고루 나누는 훈훈한 장면도 있었던 것이다. 차별을 감수하며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들을 아내면서 객원교수의 신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정신과 얼마나 부합할까. 우리도 후마니타스 선수다. 우리에게도 공을 달라.

※시간강사들의 공동작업물. 특정 개인이 아닌 중핵교과 시간강사 명의로 표기해 달라고 밝혀왔습니다.

오윤자의 마음코칭 - ⑦

행복을 유예하지 말고 소확행의 일상으로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학장)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종강이 다가왔는데 개강 이후 어떻게 살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건지요. 내안에 무엇이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그런데 엄마는 행복하기 위한 고생이니 참으라고, 아빠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친구조차 너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하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힘이 없고 눈 마주침도, 감정도 없고 남의 얘기하듯 무성의하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자신감이 있고 눈도 반짝이지만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임이 있어 불안이 느껴진다. 대화의 내용과 태도는 너무 다르지만 요약하면 두 유형 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는 신속히 얼굴 근육을 풀고 눈꼬리는 내리고 입 꼬리는 울리며 질문한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자신에 관해

아주 작고 좋은 것을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다린다. 그 짧고 굵은 기다림 속에서, J.D. 벤스의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 주인공처럼 상담자 역시 기억 속에서 자신이 행복했다는 사소한 기회들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작지만 확고한 행복을 찾는 삶

교실과 가정에서 자라면서 태도와 습관, 기대 등을 만들어 왔다. 청년기를 맞이까지 대부분 주위로부터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여행이 아니라 도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나 선택적 추상화에 익숙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의 교육이나 멈춰 서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일러주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그런 방식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다. (해피: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와 같이 행복을 주제로

한 일부 서적을 보면, 행복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만족을 얻는 것 또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성취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름길은 없고 매사 그렇듯이 행복은 인내가 필요하되 스스로 움직여 만들어낸 일상적인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권한다. 또한 행복하기의 기본은 관심으로, 이것이 행복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마음 챙김이나 기도를 통해 주변에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알아차리라고 일러준다.

현대인 중 많은 사람이 행복유예증후군(Deferred Happiness Syndrome)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언젠가 보상이 따르리라는 희망에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희생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견디는 상태다. 행복주의, 행복하기, 행복유예증후군 등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니, 행복하기 위해선 달라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8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한 송은이 씨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누군가를 빛내는 역할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여덟 번째의 전성기를 만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가 26년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준비한 덕분에 아홉 번째 전성기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둘 말린 깨끗한 속옷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작지만(小) 확고한(確) 행복(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내일의 행복보다는 오늘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사례의 학생에게도 자신의 장점을 사실적으로 하나씩 열거해 보면서 소확행을 확대하는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싶다. 내일 보다는 오늘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한다.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니 현재 동기와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수정해 장점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본다. 이와 함께 자신이나 친밀한 사람을 상대로 적게라도 감사 일기나 행복한 메모를 써 차곡차곡 쌓아서 조금씩 더 크게 키워가는 것이다. 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도구 중 ‘문장완성검사’는 첫 단어가 몇 개 적혀 있는 미완성의 문장을 기초로 현재의 자신을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음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지 궁금하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_____,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_____, 지금부터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한다면, 나는 _____,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한 학기 동안 마음코칭 연재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사실이다.